

**Look Into Korean Art Education in the 21th Century--
Environment, Life, and Art Education**

Jeong Jin Myung

President of Korean Children Painting Society

Former Principal of Seoul Karak Elementary School

Abstract

No matter in developed, developing, or underdeveloped countries, great emphasis on development has led continuo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reatly shortened the transitional period of human history.

However, owing to the deterio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the utter disregard with life, we cannot help feeling great concern about loss of human virtues and morality. Therefore, to maintain human dignity and to develop new values to keep nature and mankind in harmony is the most important issue.

So I will explain why art education should be a more important "necessity" than it is.

展望二十一世紀的藝術教育 環境，生命與美術教育的課題

韓國兒童畫研究會長／前漢城可樂國民小學校長

鄭振明

一。概要

如今，無論是先，中，或後進國家，皆因開發至上主義之擴張而成就了科技革新，也明顯縮短了人類歷史的轉型期。

相對地，由於自然環境的破壞與輕視人命的風潮蔓延，不得不對於逐漸喪失的人性與道德之問題感到莫大的憂慮。因此保障人性的尊嚴，創造出人類與自然形成和諧狀態的新價值體系，成爲最重要的課題。

在這關鍵時刻，我藉此闡明美術教育應該被視爲比現今更爲重要的一種「當然性」。

主題 : 21世紀 藝術 教育의 展望

小 主題 : 環境 · 生命과 美術 教育의 課題

發表者 : 鄭 振 明 (大韓民國)
韓國兒童畫 研究會長
前 서울 可樂 國民學校長

一. 概 要

오늘날 先, 中, 後進國을 莫論하고 開發至上主義의 擴張으로 科學 · 技術의 革新이 이루어져서 人類 歷史의 轉換期를 短縮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반면 自然 環境의 破壞와 人命輕視 風潮의 蔓延으로 인한 人間性과 道德性 喪失 問題가 甚히 憂慮되고 있으며, 人間의 尊嚴性이 保障받고 自然과의 調和를 이루는 새로운 價値 體系의 創出이 시급하게 要求되고 있는 現實이다.

이와같은 切實한 時點에서 美術教育이 보다 重要하게 다루어져야하는 當爲性을 開陳 하고자 한다.

二. 序 論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身土不二』라는 用語가 널리 使用되고 있다.

즉, 身 = 人間, 土 = 自然 은 따로따로 떨어진 個別體가 아니라 同一視 해야하는 하나라는 概念이다. 人間과 自然의 調和만이 보다 바람직한 삶을 營爲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東洋思想의 基本이라고도 말할수 있겠다.

한편 人間의 知慧와 頭腦로 이룩한 科學 · 技術의 革新은 諸般 生産過程과 社會 組織등 人間生活의 諸分野에서 分業化, 機械化, 合理化, Automation化를 놀라우리만큼 急速度로 促進시켜 生産과 生活의 能率化와 物質的 福祉 增進에 劃期的인 成果를 거양하고 있다. 그러나 節制없는 經濟萬能主義의 蔓延으로 不信과 利己主義, 그리고 敵愾心이 個人과 社會 그리고 國家間에 澎湃하여 人間性과 道德性의 喪失問題가 甚히 念慮스럽게 擡頭되고 있는데 注目해야 하겠다.

科學이 바야흐로 人間生活의 合理性和 豊饒위에 君臨하여 人間의 尊嚴性을 外面한채 物質 萬能主義로 人間을 機械化 하고 手段化 하려는 人間疎外 現像을 注視해야겠다는 것이다.

未來社會를 짚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 어린이들에게 創造力이 豊富하고 剛健한 精神力을 갖는 人間 形成을 위한 教育이 무엇보다도 앞서 推進되어야 함을 強調하게 된다.

이와같이 모든 教育의 窮極 目標인 『바람직한 人間 育成』에 크게 寄與하는데 우리 美術 教育의 焦點이 맞추어져야 되겠다.

그리하여 發表者가 勤務한 學校의 어린이를 對象으로 實踐한 內容 몇 가지 中에서 『環境 · 生命과 美術教育』과 關聯지어 發表하고자 한다.

三. 生命에 對한 考察

宇宙 안의 모든 生命(動物, 植物, 햇빛, 空氣, 물, 흙 등)은 相互 密接한 關係아래 維持되어야 한다. 이 生命 中에서 어느것 하나라도 그 關係가 斷切될 때는 人間의 生命도 終末이라는 것을 確實히 깨닫게해야 한다.

이 모든 生命 中에서 가장 優位에 있는 人間이 사랑이 아닌 貪慾에 빠지게 될 때에 創造力과 精神力은 變質하며 무서운 破壞力으로 化한다는 事實을 徹底히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物質文明에 대한 盲目的인 信仰으로 점차 喪失해 가고 있는 '自然과의 調和'에 대해서 또한 現代文明의 副産物인 環境汚染으로 인하여 擴散되고 있는 '自然 生態界의 均衡'에 대한 바른 對處 方案이 時急히 樹立되어야 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다가올 몇 世代는 危險한 環境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悽慘한 現實을 바로 보도록 깨우쳐 주어야 한다.

이와같은 일들은 只今 곧 環境汚染을 積極的으로 防止하고 徹底한 對策을 세워서 推進하는 境遇에 限한다는 急迫한 狀況임을 알게 해야 한다.

只今 世界에서는 1년에 千가지 以上の 새로운 物質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여러 企業에서는 그 物質을 市場으로 내놓고 있다.

이것들이 우리 人間 生活에 많은 便宜를 주고있는 것은 分明하지만, 反面에 이와같은 文明의 惠澤이 人間 自身の 손에 의해서 自然環境을 人間 自身の 生存까지도 威脅하는 方向으로 급격히 逆機能的으로 作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는 教育이 徹底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으로 博物館이나 動物園에서 이미 사라져버렸거나 지금도 繼續的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動物과 植物의 種類를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다.

그러한 動植物들 가운데는 當代의 英雄이었던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며 只今도 滅種危機에 처한 것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生活 環境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果然 우리 人間의 運命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人間만은 사라져가는 動植物 種類의 LIST에 絶對로 包含되지 않는다는 確信과 保障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現在와 將來의 世代를 위해서 自然環境을 保護하고 改善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온 人類의 至上課題가 되어야 한다.

'自然과의 調和'를 回復하고 '生態界의 均衡'을 維持하여 하나뿐인 이 地球上에서 人間을 비롯한 모든 生命體를 存續시키는 일을 政治, 經濟, 教育, 藝術의 至上 目標로 삼아야 하겠다.

四. 學校 教育의 問題點인 工夫(STUDY)에 對한 考察

오늘날의 學校 教育에서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많은 問題點을 일일이 論據할 수는 없고 다만 本 主題와 깊이 關聯이 있는 工夫에 대한 事例 하나를 들어 보겠다.

우리나라 學生이나 學父母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學校는 工夫하는 곳이고, 工夫하면 우선 試驗을 聯想하게 되며, 그 試驗은 반드시 高點數를 받아야 한다'는 強迫觀念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初, 中, 高等 學校를 거쳐서 大學에 가기 위해서는 無條件 高點數를 받은 者만이 合格이라는 榮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熾烈한 競爭을 뚫기 위해서는 어떠한 手段과 方法을 써서라도 高點數 따는 일에만 及及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入試 地獄이라는 通念이 一般化 되어서 基礎過程인 幼稚園, 國民學校에서부터 劃一화된 高點數 따기 위한 準備過程으로서의 學校外 學習인 課外敎習이 盛行하고 있다. 發表者가 勤務한 學校는 學父母의 家庭生活 形便이 그다지 넉넉한 편이 아닌데도 全體 學生의 80%以上이 많은 私費를 들여서 課外敎習 工夫를 하고 있는 實情이다.

* (1994.9.29 우리나라 有數 日刊 新聞인 『東亞日報』 1面 TOP 記事,
課外費 年 19兆, 國防費의 1.9倍라고 國政監査에서 指摘)

나는 이와같은 잘못된 學父母들의 觀念을 바로잡기 위해서 學校長으로 勤務하는 동안 '工夫란 人間의 生活에서 지켜야할 道理를 바로 알고, 깨달은 다음 그것을 實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고 내 나름의 敎育信念을 機會있을때마다 力說하였다. 그러나 最終적으로 좋은 大學을 나와야만 좋은 就職자리를 保障 받을수 있다는 觀念이 너무나도 깊게 뿌리박고 있어서, 이와같은 敎育 亡國 思想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劃期的인 入試 改善 對策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異口同聲으로 主張하는 識者가 많이 나오게까지 되었다.

『바람직한 人間關係의 形成』을 위한 學校敎育이 積極적으로 推進되어야만 비로소 百年之計인 '敎育立國'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五. 研究의 假說과 바람직한 美術敎育

1. 研究의 假說

바람직한 美術敎育은 失墜된 人間性 回復에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이다.

A. 人間의 實體

人間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첫째는 表面的인 自我이다.

즉, 눈으로 볼수있는 可視的인 人間의 모습을 말한다.
머리, 눈, 코, 입, 귀가 있는 얼굴로 부터 손, 발까지의 몸 전체인 身體를 말하는 것이다.
이 身體의 맵시는 端正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몸짓 또한 다른사람이 보기에 항상 좋아야 한다.

그러기에 옛부터 人間의 外貌와 行動舉止에 대한 敎訓이 많이 있어 왔다.

° 둘째는 潛在的인 自我이다.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超可視的인 人間의 마음을 말한다.
마음은 喜, 怒, 哀, 樂이 不斷히 作用하게 된다. 人間의 日常生活에서 기쁨(喜)과 즐거움(樂)만 있으면 좋으려만 때로는 노여움(怒)과 슬픔(哀)을 남으로부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남에게 끼치기도 하는 것이 人間의 生活이다. 이와같은 마음의 作用은 그 表現方法이 서로 다르지만 다른 動植物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셋째는 深層地帶의 自我이다.

즉, 人間의 깊은 곳에 內在하고 있는 知性, 理性, 感性 그리고 人間의 根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靈性을 말함이다. 魂이라고도 하고 精神이라고 일컫는 領域인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의 本性이요, 人間의 本質으로써 創造主가 萬物의 靈長인 人間에게만 준 貴重한 贈物인 것이다.

美術教育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育成하고자 하는 領域이 바로 이 深層地帶의 啓發이다. 것이다. 오늘날 高度로 發達한 近代化의 科學文明 속에서 人間性의 喪失을 念慮하는 것도 生命의 基本이요 本質인 精神 世界가 지나친 物質 追求로 인해서 混濁해짐 때문이다.

버트란드-러셀 (Bertrand Russell. 1872 - 1970) 은 人間의 原初的인 두 가지 慾望을 指摘하였다. 즉 所有慾과 創造慾인데 所有慾은 다분히 物質的인 것이고 創造慾은 精神的인 것을 強調한 것이다.

이 두 慾望이 한쪽에 치우침없이 相互 補完作用으로 調和와 均衡을 이룰 때 비로소 『바람직한 人格形成』이 이루어지게 된다.

未來社會를 짚어지고 나아가할 우리 어린이들이 모든면에서 넉넉하게 思惟하고, 餘裕있게 活動하는 自由人이면서도 秩序에 따라서 行動하는 平和的인 人間, 그리하여 精神과 肉體, 理性和 情操, 個人的 慾求와 社會的 責任사이에 均衡을 이룬 人間으로 成長해 가도록 教育을 해야 한다.

B. 가르치는 일과 기르는 일에 대한 考察

教育을 漢字로 쓸때의 教와 育에는 각각 奧妙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即, 教는 가르침을 나타내고, 育은 기른다는 뜻이 內包되어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분히 知識的인 面을 強調하는 表面的 教育課程의 內容 開發에 注力하는 것이고, 기른다는 것은 밖에 드러나지 않은채 숨겨져 있는 것을 일깨우는 潛在的 教育課程의 內容 啓發에 力點을 둔다.

즉, 國語, 算數, 社會, 自然(科學)등 主知教科는 習得한 學習 內容을 問題紙를 利用한 試驗이라는 手段에 의해서 그 結果를 點數化 할 수 있는 知識的인 內容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 嚴密하게 따져서 學習結果를 일일이 點數化 할 수 없는 體育, 音樂, 美術 등 藝體能 教科와 道德 教科의 內容은 주로 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學校 教育의 基礎가 되는 初等教育 過程에서 가르치는 일(教)과 기르는 일(育)은 그 어느 한쪽에 偏重되어서도 안되고, 어느 한쪽이 疏忽하게 다루어져서도 안된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上述한 두 領域 內容이 均一되게 開發되고 啓發될 때에야 비로소 참다운 教育의 成果를 期待할 수 있게 된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속에 묻히어서 햇빛과 水分과 養分이 고루 갖추어졌을 때 싹이 트고, 가지가 뻗어 잎이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되는 過程에서 겉으로 들어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可視的인 나무의 겉 모양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두운 곳에서 맡은 役割을 다하고 있는 超可視的인 뿌리의 價値와 重要性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理致와도 같은 것이다.

即, 表面的으로 나타나서 태양 빛을 받아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가르치는 敎의 役割이고, 땅속 깊이 潛在하여 나무가 자라는데 絶對的으로 必要한 水分과 養分을 빨아 올리는 뿌리는 기르는 育의 役割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봄철에 나무를 옮겨심는 庭園師가 하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나무의 밖으로 뺀 가지 부분은 대충대충 切斷해 버리지만, 뿌리 部分은 구덩이를 깊게 파서 잔 뿌리까지 傷하지 않도록 精誠드려서 새끼줄로 얼거맨 다음에 操心스럽게 옮겨 심는 것이다. 뿌리가 傷하면 아무리 값비싼 나무라 할지라도 시들어 죽고 말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學校 敎育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眞理를 깊이 省察하고 實踐에 萬全을 기해야 되리라고 본다.

2. 바람직한 美術 敎育

A. 國民學校 『즐거운 生活』 敎科에 대한 考察

1) 『즐거운 生活』 敎科의 性格

『즐거운 生活』 敎科는 從來에 1-2學年 過程에서 分離하여 다루어오던 體育, 音樂, 美術의 세 敎科를 統合한 것이다. 即, 國民學校 低學年 過程에서 다루던 敎科中心의 敎授-學習 方法을 止揚하고, 融通性 있는 授業 方案을 構案 活用하여 敎育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기 위한 劃期的인 試圖로써, 198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實施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統合 敎育에서는 心理學的 機能面으로서의 學習을 容易하게 하는 한편 學習을 통한 人格形成을 強調하고 있다.

(어린이의 學習을 돕는 面)

- 첫째, 어린이의 心理的인 特性을 考慮하며
- 둘째, 日常生活에서의 具體的인 場面과 關聯짓고
- 셋째, 어린이의 學習 動機를 效果的으로 誘發하도록 誘導하여
- 넷째, 學習力 伸張을 위한 效果的인 學習을 展開하고
- 다섯째, 學習된 知識과 技能을 適用할수 있는 機會 提供으로 學習의 效果를 高揚하도록 한다.

(어린이의 人格 形成 面)

- 첫째, 어린이의 知的 發達 뿐만 아니라 情意的 側面을 包含한 全人格의 成長에 寄與하게 하고
- 둘째, 自律的 學習과 責任 分擔등을 통하여 積極的 自我 概念을 形成하게 한다.

『즐거운 生活』의 敎育은 놀이 中心의 學習 活動을 통하여 體育, 音樂, 美術의 서로 聯關되는 一般的인 特性을 더욱 深化시켜 各 敎科에 맞는 概念의 認識 能力을 開發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다시말하여 『즐거운 生活』 敎科는 人間의 遊戲的인 身體 活動, 表現 活動, 鑑賞 活動을 통하여 삶을 보다 豐富하고 아름답게 꾸미려는 基礎 敎養의 敎育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즐거운 生活』 敎科의 統合 背景

오늘날 複雜 多樣하고 量的으로 擴大된 生活의 領域을 制度化된 學校 敎育속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同質의이며 같은 類目에 屬하는 것 끼리는 묶어서 가르칠 必要性이 提起되었다. 卽 分化되었던 敎科目을 統合하여 統合 敎科로 만든다는 것은 人間의 生活과 實存으로 되돌아 가기 위한 努力이며, 곧 統合된 敎科目을 통한 人間性 回復과 全人敎育으로의 回歸를 뜻하는 것으로 理解하게 되었다.

따라서 統合敎育은 敎育課程의 原初의 狀態로 되돌아 가기 위한 再發見이며, 人間의 自我 實現을 成就하도록 努力하는데 이바지 하기 爲한 敎育의 새로운 挑戰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즐거운 生活』 敎科는 이와같은 論理에 立脚하여 體育의 身體를 통한 活動과 音樂의 소리(音)와 美術의 色과 形이라는 創造的 表現 및 鑑賞活動의 全體의 特徵을 包括하여 삶을 보다 豐饒롭고 健康하게 營爲하며, 한편 情緒적으로 安定된 生活을 꾸미기 위한 基礎로써의 統合이 곧 『즐거운 生活』 敎科이다.

3) 『즐거운 生活』 敎科의 敎育 課程 構成

『즐거운 生活』은 遊戲 中心의 學習 活動을 통하여 情緒를 豐富하게 하고 創造性, 自主性, 道德性을 啓發하여 全人格의인 存在로 자라게하는 基礎를 기르는데 敎育課程의 目標가 設定되어 있다.

이 時期의 어린이들은 아직 未分化된 自己中心的 思考를 하며, 經驗도 理論의으로 分析하기가 어렵고 學習에서의 持續性이 不足하며, 興味의 對象이 자주 바뀌게 되므로 變化있는 多様な 學習 課題의 提示가 必要하게 된다. 즉, 主題에 따른 體育, 音樂, 美術의 經驗을 통하여 多様な 興味와 慾求를 充足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즐거운 生活』 敎科의 敎育課程은 다음과 같은 原則이 提示되었다.

첫째, 遊戲를 통한 敎育的 意圖를 담은 計劃으로써 敎育目標, 敎育內容, 指導方法과 評價로 構成한다.

둘째, 敎育課程의 目標 -> 內容 -> 方法 -> 評價의 要素를 하나의 體系로 보고 이와같은 것이 循環的인 一貫性을 維持하면서 緊密한 相互作用을 하도록 構成한다.

『즐거운 生活』 敎科의 敎育課程 目標와 內容의 構成 原則은 다음과 같다.

【 目標 構成 】

첫째, 妥當性 있는 目標을 選定한다.

둘째, 目標를 明確하게 陳述한다.

셋째, 個人과 國家 社會의 要求에 副應하고 心動的, 情意的, 認知的 領域이 均衡있게 調和를 갖추도록 한다.

【 內容 構成 】

첫째, 어린이의 生活 周邊에서 손쉽게 接할 수 있는 活動을 主題로 選定한다.
둘째, 單純하고 具體적인 것으로부터 複雜하고 抽象적인것 卽, 部分에서 全體로 自然스럽게 連結될 수 있는 內容으로 組織한다.

4) 『즐거운 生活』 敎育課程의 敎科 目標

(第 6次 敎育課程 1995. 3. 1 施行)

【 敎科目標 】

즐겁고 活氣찬 여러가지 놀이와 表現을 통하여 健康하고 明朗한 生活을 하게하고 創意的 表現과 豐富한 情緒를 가지게 한다.

가. 여러가지 놀이를 통하여 運動의 基本 技能을 기르고, 健康과 安全 生活을 習慣化하게한다.

나. 多樣한 表現活動을 통하여 自身의 생각과 느낌을 自由롭게 나타내게 한다.

다. 여러가지 表現에 關心을 가지고 보고, 들으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5) 『즐거운 生活』敎科의 敎育 內容

『즐거운 生活』敎科의 敎育 內容은 選定과 組織의 原理에 따라서 身體 活動, 表現 活動, 鑑賞 活動의 3領域으로 大別하여 體系를 세웠다.

(1) 身體 活動

身體 活動에서는 특히 基本的인 움직임을 強調 하였다. 基本 움직임은 移動運動과 非移動運動, 操作運動으로 나누어졌으며 學習 要素는 自然스럽게 表現 活動과 鑑賞 活動으로 連結될 수 있도록 짜여졌다.

(2) 表現 活動

表現活動은 音樂과 美術, 體育이 統合되어 自己의 생각이나 느낌, 感情을 여러가지 手段과 方法을 통하여 나타내도록 짜여졌다.

(3) 鑑賞 活動

鑑賞活動은 어떤 움직임을 본다, 造形 作品을 본다, 音樂을 듣는다 등 어린이들의 多樣한 着想과 아이디어, 느낌, 表現등 鑑賞의 基礎가 되는 活動 內容으로 짜여졌다.

3. 環境과 生命을 尊重하는 美術 敎育(事例)

美術敎育의 基本目標가 『바람직한 人間 育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前述한 바와 같다. 따라서 人間의 根本이 되는 魂과 精神을 튼튼하게 育成하는 敎科으로써 美術敎育이 中心 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게된다. 人間의 根源은 곧 生命이다. 이 生命의 神秘와 尊貴함을 알고 깨닫고 所重하게 다루는 態度를 기르기 위해서 봄철 4월이 되면 全校生을

對象으로 一人 一盆 가꾸기 運動을 展開한다.

二千八百餘名 어린이 全員이 各者 花盆을 마련하고, 손쉽게 求할 수 있는 各種 씨앗을 準備해 가지고 그 花盆에 精誠드려서 심는다. 花盆 겉면에 씨앗이름과 播種한 날짜를 써붙이고 觀察帳을 各者가 準備하도록 한다.

땅에 심은 씨앗은 適當한 溫度와 水分과 養分, 이 세가지 條件이 갖추어지면 싹이 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關心은 大端하다.

4,5일이 지난後부터 움이 터 오르기 시작한 새싹을 發見할 수 있었으며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빛나기 始作했다.

여기저기에서 歡呼聲이 터져나왔다. 이렇게하여 各者의 觀察帳에는 生命의 싹의 成長에 따른 變化하는 모습이 하루하루 스케치 되어갔다.

一週일에 물은 몇 번 주어야하며, 觀察과 스케치하는 要領이 敎師로부터 指導되었다. 즐기가 곱어지고 잎이 커지면서 부터는 어린이들의 觀察 態度가 細心해졌고 스케치도 精密 描寫로 發展하였다. 받침대도 해주는등 生命의 成長을 돌보는 어린이들의 精誠이 極盡하였다.

이리하여 꽃이 피고 열매 맺는 過程이 그대로 어린이들의 깊은 關心과 仔細한 觀察 가운데 描寫되었다. 이 過程에서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어린이들과 植物과의 많은 對話가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生命의 所重함을 體驗으로 感得하는 貴한 機會를 갖게 되었다. 이와같이 描寫된 作品을 가지고 6月 初에는 훌륭한 展示會를 開催할 수 있었다.

六. 結論 및 提言

1. 結 論

이제부터는 美術科를 從來와 같이 單純히 技能爲主의 藝能敎科의 하나라고 보는 思考를 바꾸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敎育實踐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期待하는 人間像에 가까와지는 被敎育者의 純全한 모습에서 美術敎育의 바른 價値를 찾아야 하겠다. 어린이들이 自己의 눈과 마음으로 잡은 印象 깊은 感銘을 어떻게 表現하는것이 좋을까 하는 創造的인 思考와 그것을 自己의 손과 힘으로 具體的으로 나타내는 創造的인 表現의 두 가지 面의 活動이 各者 自己의 責任下에 強하게 自覺이 되어 作用하게하는 敎科가 곧 美術科인 것이다.

다시말하여 하나하나의 作品을 表現하는 過程에서 항상 '思考와 表現'의 두가지 面이 中心核이 되어 作用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바람직한 人間性을 形成』하는 基盤이 된다는 것이다.

物質萬能思潮의 蔓延과 自然과 人間秩序의 破壞로 인한 地球와 人類의 危機說이 날로 深刻해지고 있으며, 이제 하나뿐인 地球村의 安全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保障받을 수 없는 狂亂과 無秩序의 樣相이 너무나도 엄청난 世界 精勢인데, 驚異的인 尖端 科學文明의 金子塔을 이룩한 人間自身은 그 科學文明의 奴隸化가 되어 人間疎外를 비롯한 人間性의 喪失이라는 地境에까지 이르러 現時點에서 涸涸하게

밀려오는 거센 波濤에 우리 어린이들이 슬기롭게 對處하며 適應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물결의 未來社會를 開拓하고 發展시켜 나가야할 主人公으로써의 莫重한 責任을 宿命的으로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百年大計라고 일컫는 오늘날의 모든 教育이 다음 世代를 意識한 未來 志向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낱 知識만을 傳受하고 技能만을 鍊磨하여 머리와 손의 發達만을 促進하던 知識開發 入試 爲主의 優等生 養成 教育方法을 果敢히 改善하고, 人間의 深層地帶(知性, 理性, 感性, 靈性)를 啓發하는 마음의 教育을 더욱 尊重하고 重視하는데 兒童美術教育의 焦點이 맞추어져야 함을 다시금 強調한다.

2. 提 言

- 1) 豫測不許의 未來社會에 對備하고 總體的 危機 克服을 위한 人間育成 教育으로써 美術科 教育의 價値가 再認識되고 再定立되어야 하겠다.
- 2) 環境과 生命을 尊重하고 人間의 尊嚴性이 保障받는 社會를 이룩하는데 焦點이 맞추어진 美術科 教育의 프로그램이 時急히 開發되어야 하겠다.

